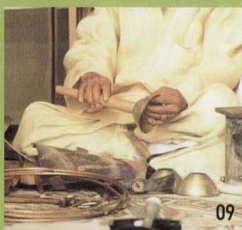




탄현면, 문화유산

- 01_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 국가 보물 제1323호
- 02_장릉 • 국가 사적 제203호
- 03_오두산성 • 국가 사적 제351호
- 04_공시장 유영기 •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 05_금산리민요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 06_황희선생 묘 • 경기도 기념물 제34호
- 07_정연 묘 • 경기도 기념물 제139호
- 08_황정옥 묘 및 신도비 • 파주시 향토유적 제19호
- 09_전통 쇠납 제작 연주기능 보유자 조병주
• 파주시 무형문화유산 제1호



화창^{火窓}의 해와 달의 절묘한 조화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恭孝公 朴仲孫 墓域內 長明燈

탄현면 오금리에 있는 공효공^{恭孝公} 박중손 묘역내에 세워진 2기의 장명등이다. 박중손^{朴仲孫}, 1412~1466은 조선초기의 문신으로 여러 요직을 지냈으며, 특히 천문^{天文}을 관찰함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많은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이 곳 묘역에는 좌측에 박중손 묘와 우측에 부인인 정경부인^{貞敬夫人} 남평문씨^{南平文氏}의 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다.

묘소앞으로 장대석축에 걸쳐 장방형의 상석^{床石}을 두었고 그 앞에 각각 장명등^{長明燈}을 두었다. 묘역 좌우에는 각각 문인석과 무인석이 있으며, 우측아래쪽에는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박중손묘의 장명등은 신도비 건립년대와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초기 장명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부는 대좌^{臺座}와 화사^{火舍}로 이루어져있고 상부는 옥개석으로 되어있는데 등부^{燈趺}인 대좌는 하대·중대·상대 등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고, 그 위에 화사부분이 조식되었으며 옥개석은 옥개^{屋蓋}와 연주대^{蓮珠帶} 및 연봉형^{蓮峯形}의 보주^{寶珠}로 구성되어 있다. 정경부인묘 앞의 장명등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하여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을것으로 추정되며, 두 장명등이 높이는 서로 비슷하나 박중손묘 앞 장명등이 둔중해 보이는데 비해 정경부인묘 앞 장명등은 세장한 모습을 하고 있어 마치 남녀를 구분하는 듯 하다. 이 두기의 장명등^{長明燈}은 조선초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또한 묘제^{墓制} 및 기타 석물^{石物}들도 조선 초기의 우수한 조성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박중손묘 앞에 있는 장명등은 전·후면은 방형^{方形}으로 화창^{火窓}을 내었으나, 동쪽에는 원형^{圓形}, 서쪽에는 반월형^{半月形}의 화창을 두어 일·월^{日·月}을 상징한 독특한 형태로 일명 일월등^{日月燈}이라 불리고 있다. 정경부인묘 앞의 장명등은 이보다 세장^{細長}하면서 화창을 모두 방형으로 만들어 박중손 장명등과 서로 비교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 지 정 번 호 | 보물 제1323호
- 지정년월일 | 2001년 9월 21일
- 소 재 지 | 탄현면 오금리 산19
- 소 유 자 | 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



주변문화재·형의선생묘

금촌-탄현면 사무소-문산방면 진행 오금리 삼거리에서 오금리 마을 진입-오금2리 방앗간을 끼고 돌면 신도비와 묘역이 나타남

- 01 | 공효공 박중손 묘역
- 02 | 정경부인 묘 앞 장명등
- 03 | 박중손 장명등



01



02



03

한많은 세월을 살다간 임금, 인조^{仁祖}의 능

장릉(인조 장릉) 長陵(仁祖長陵)

장릉^{長陵}은 조선16대 임금인 인조^{仁祖}와 그 비인 인열왕후 한씨^{仁烈王后韓氏}의 합장 능^陵이다. 인조는 선조^{宣祖}의 다섯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추존^{推尊}元宗의 맏아들로 능양군^{綾陽君}에 봉해졌는데 1623년(광해군 15) 인조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인조는 27년동안의 재위기간 중 이괄^{李适}의 난^亂, 정묘호란^{丁卯胡亂},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은 후 삼전도^{三田渡}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昭顯}, 봉림^{鳳林} 두 아들을 인질로 보내는 치욕을 당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당파간의 싸움이 격화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짐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1649년(인조 27)에 승하하였다. 인조의 비 인열왕후 한씨는 1610년 능양군과 혼인하였고 인조 즉위와 더불어 왕비가 되었다. 효종^{孝宗}과 소현세자^{昭顯世子}, 인평대군^{麟坪大君}, 용성대군^{龍城大君}의 4형제를 낳았으며 42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장릉은 당초 문산읍 운천리 대덕골에 있었으나 1731년(영조 7) 석물뜰에 뱀들이 집을 짓고 극성을 부려 지금의 위치로 옮겨 합장하였다. 장릉의 석물구조를 살펴보면 봉분아래로 12면의 병풍석을 세우고 그 바깥으로 돌 난간을 둘렀으며 봉분앞에 상석^{床石} 2좌^座를 배치하여 2위^位임을 나타냈다.

상석 중앙 정면에 장명등과 양쪽에 망주석 2기를 배치 하였고 그 아래로 문인석과 무인석을 각각 1쌍씩 세웠다. 봉분 주위로 는 석마^{石馬}, 석양^{石羊}, 석호^{石虎}를 각각 2필씩 배치해 능을 호위케 하고 있다. 장명등, 병풍석 및 석수^{石獸} 등은 태조의 건원릉^{建元陵} 석물양식을 따른 것이나 병풍석에 새겨진 문양은 구 장릉의 전통적인 운문^{雲文}과 십이지신상이 아닌 화문^{花文}-목단과 연꽃으로 바꾸고 8각형의 장명등에도 목련과 연화문을 조각해 넣은 것으로 보아 18세기 능석물 문양이 갖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丁字閣}과 비각^{碑閣}, 수복방^{守僕房}이 위치하고 있으며 재실은 홍살문 동남측 소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이곳은 일반인에게 비공개 관리되고 있다.



- 01 | 장릉 전경
- 02 | 장릉 석물
- 03 | 능역

주변문화재 : 정연 묘, 오두산성, 금단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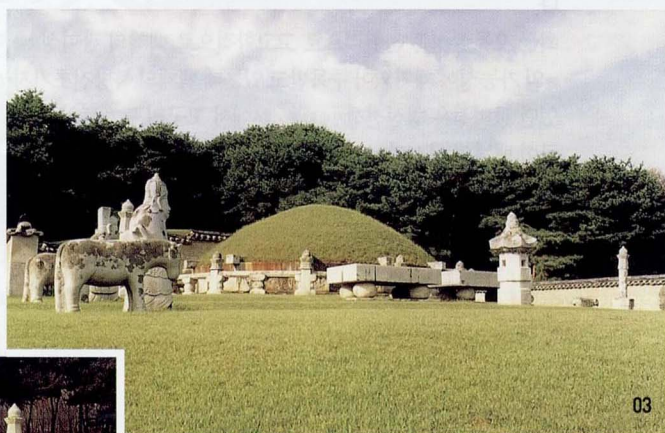
신촌전철역 773, 567(입석) 버스를 타고 금촌 · 탄현 버스터미널 하차 후 3번 5번 버스를 타고 갈현리마을 인삼사우나 이정표에서 하차 후 도보 20분 소요됨





01

- 지정 번호 | 사적 제203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5월 26일
- 시대 | 영조 7년(1731)
- 소재지 | 탄현면 갈현리 산25-1
- 소유자 | 국가



03



02

백제의 북방전초기지, 관미성(關彌城)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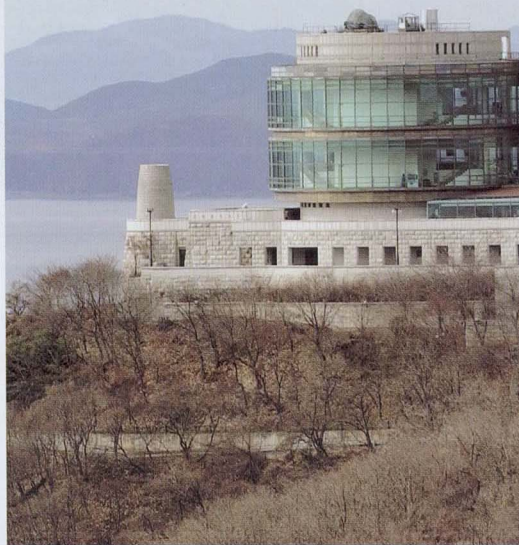
오두산성

烏頭山城

오두산성(烏頭山城)은 탄현면 성동리 자유로(自由路)가 지나는 오두산의 정상부분과 산사면에 따를 두르듯이(테피식) 축성된 석성(石城)이다. 오두산은 한강과 임진강 하루가 맞닿은 곳에 표고 119m로 솟아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산 정상에서 서면 서쪽으로는 북한 지역이, 남쪽으로는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서쪽으로는 한강이 북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두 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드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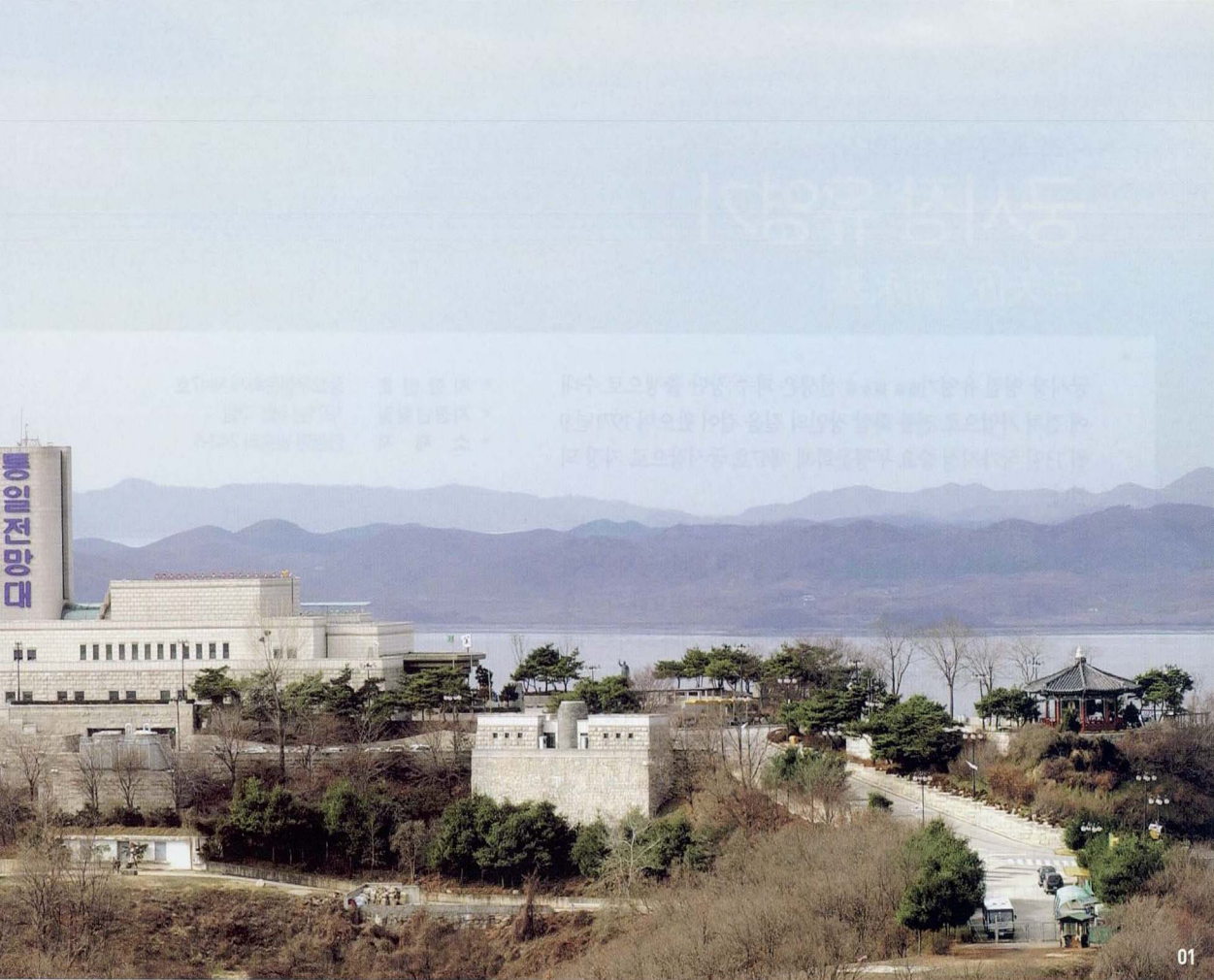
산성은 현재 정상에 통일전망대(統一展望臺)가 들어서 있는 그 규모와 원형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한강과 인접해 있는 가파른 북쪽절벽위에 약 10여m의 성벽이 잔존하고 있다. 산 정상부근에는 여기저기에 성벽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으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통하여 계속 축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성은 한국전쟁이후 거의 유실 파손되었으나 1990년 9월부터 1991년 11월 사이의 발굴 조사에서 규모가 밝혀지고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토기(土器), 백자(白磁), 기와(器瓦), 철축(鐵鐵) 등의 유물이 다수 발견되었다.

최근 오두산성은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백제의 관미성(關彌城)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백제의 북방전초기였던 관미성은 병신전쟁(丙申戰爭)·36에서 고구려 광개토왕의 수군이 백제의 아신왕(阿辛王)을 치고 수도 위례성(慰禮城)을 함락시키기까지 광개토왕의 남하정책 경로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지정번호 | 사적 제351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8월 24일
- 시대 | 삼국시대
- 소재지 | 탄현면 성동리 산86
- 소유자 | 국가
- 규모 | 총길이 621m 추정, 약 10m 잔존





우리나라 전통 화살의 장인 匠人

공시장 유영기

弓矢匠 劉永基

공시장 영집 유영기 繼承 劉永基 선생은 파주 장단 출생으로 수대에 걸쳐 가업으로 전통 화살 장인의 길을 걸어 왔으며 1971년 9월 13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47호 공시장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대한민국 최초의 활, 화살 전문 박물관인 영집 공시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공시박물관에는 각종 활과 화살 및 쇠뇌 그리고 활쏘기에 필요한 각종 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 활쏘기와 쇠뇌쏘기를 체험할 수 있어 다양한 한국의 활쏘기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 전시장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활과 화살을 비롯해 외국의 활과 화살, 활쏘기에 필요한 도구들, 쇠뇌, 화차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활은 생김 형태에 따라 작궁과 만궁으로 나뉘고 재료에 따라 각궁, 목궁, 죽궁, 철궁 등으로 나뉜다. 화살은 재질에 따라서 죽전과 목시로 나뉘는데 다량의 화살을 제작하려면 그 지방에서 흔하게 자생하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쪽에서는 주로 대나무를 북쪽에서는 자작나무와 버드나무 또는 싸라나무를 사용했다 한다. 또한, 활로 발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화살은 발사 방법의 발달로 쇠뇌와 대포 등으로도 발사하였으며 고려 말경에는 스스로 날아가는 로켓형 화살이 발명되기에 이르렀다. 화살의 종류로는 전투용, 수렵용, 신호용, 통신용, 의식용 등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곳 전시장에서 모두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 내에는 활과 화살 외에도 쇠뇌와 화차 모형도 볼 수 있다. 쇠뇌는 활을 발전시킨 것으로 쇠뇌의 앞부분에는 활을 설치하고 뒷부분에는 방아쇠를 장치하며 틀 위에 화살을 올려 놓고 발사하는 무기다. 전시장 밖 야외에는 직접 활쏘기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활쏘기 체험장을 만들어 놓았다.

- 지정번호 |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9월 13일
- 소재지 | 탄현면 법흥리 242-5



02



03

- 01 | 공시장 유영기
- 02 | 영집 공시박물관
- 03 | 영집 공시박물관 내부

주변문화재 : 오두산성, 장릉, 금단사

자유로 - 성동인터테인지 - 금촌방면으로 진행하다 시그네틱스 맞은 편 마을길로 진입, 영집 공시박물관 거주





01



경기 서북부 지방의 대표적인 농요農謠

금산리 민요

錦山里 民謠

탄현면 금산리 마을은 경기 서북부지방 농요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논매기소리 등의 논농사소리와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향토민요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설과 음악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60~70대인 회원들이 “금산리 민요보존회”를 결성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탄현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두레농악을 정기적으로 지도하는 등 우리시의 향토민요와 농악의 보존·전승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한 두 사람의 선가先歌者에 의존하지 않고, 다수의 선소리꾼이 특징에 따라 노내기소리, 논매기소리, 상여소리, 달구소리 등 메기는 소리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금산리 민요는 97부터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상, 노력상, 입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우리시의 민속예술축제에 빠질 수 없는 무형문화유산이다.



- 지정번호 |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
- 지정년월일 | 2000년 8월 21일
- 소재지 | 탄현면 금산리 35
- 소유자 | 금산리 민요보존회



주변문화재 : 오두산성, 장릉, 황희 선생 묘

금촌-탄현면-탄현면 사무소에서 문산방면 직진-오금리 마을 전에 좌측마을이 금산리 마을

01 | 금산리 민요 마을 두레 모습

02 | 금산리 민요 정기공연



01



02

대를 이은 영의정 묘역이 마주하고 위치

황희 선생 묘

黃喜 先生 墓

조선초기의 명재상이며 청백리의 표상인 방촌 황희(房村 黃喜, 1363~1452) 선생의 묘이다. 선생의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房村), 시호는 익성(翼成),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선생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12년(1363)에 개성에서 출생하여 27세때 문과에 급제 성균관학록이 되었다. 1392년에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은거하였는데 조정의 요청과 동료들의 추천으로 성균관학관으로 왕이 직접 벼슬을 내렸다. 이후 여러 요직을 역임하면서 조선 태종대에 국가기반을 확립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세종대에는 20여년 동안 국정을 총리하는 의정부의 최고 관직인 영의정부사로서 외교와 문물제도의 정비, 4군 6진의 개척,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문물의 진흥 등을 지휘하여 세종성세(世宗盛世)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묘역은 3단으로 넓게 조성되었고, 봉분 역시 규모가 크다. 봉분의 구조는 다른 묘의 형태와는 달리 전면을 ㄷ자 모양으로 화강암 장대석을 이용하여 전방을 향해 3단의 호석(護石)을 쌓아 봉분과 연결시킨 특이한 구조이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상석·향로석이 밀착되어 있으며 그 정면에는 4개의 화창이 투각된 장명등이 있다. 봉분좌측에 묘갈이 위치하며 그 아래로 동자상과 문인석이 각각 1쌍씩 설치되어 있다. 묘역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원모재 앞 언덕에 신도비가 있는데 1505년(연산군 11)에 세워졌으며 신숙주가 짓고 안침이 썼다. 비문은 마모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하며 옆에 1945년에 다시 세운 신도비가 있고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황희 선생 묘와 약 2백여m 떨어진 맞은 편 산자락에는 선생의 셋째 아들인 황수신(黃守身, 1407~1467)의 묘가 위치하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다.



- 01 | 황희 선생 묘
- 02 | 초상
- 03 | 신도비각
- 04 | 묘비
- 05 | 신도비



주변문화재: 황정옥 묘 및 신도비, 황수신 묘, 춘곡 정탁 묘, 박준손 묘역내 장명등

자유로 - 낙하IC 진입 - 낙하사거리에서 금송리 방면 진행하다 좌측 마을로 들어가면 황희 묘역이 위치 ● 동일로 - 월릉역 - 월릉면사무소로 진입 - 역근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01

- 지 정 번 호 | 경기도 기념물 제34호
- 지정년월일 | 1976년 8월 27일
- 시 대 | 조선 전기 문종 2년(1452)
- 소 재 지 | 탄현면 금승리 산1
- 소 유 자 | 장수황씨 종중



02



03



04



05

금승리 마을회관을 끼고 우측 마을로 진입 • 서울역 9710, 불광동터미널 909 버스를 타고 월릉역에서 하차후 길 건너편 월릉면지서 앞에서 6번버스를 타고 금승리슈퍼앞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소요

장릉 천장遷葬때에도 옮기지 못한 묘역

정연 묘

鄭淵 墓

조선태종·세종때의 문신인 정연鄭淵, 1389~1444의 묘이다. 정연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중심仲深, 호는 송곡松谷이다. 태종 5년(1405) 생원시에 합격하고 음보로 지평에 재직중 당시 태종의 신임을 받던 영의정 하륜河崐의 비행을 탄핵한 일로 순금사에서 국문을 받았으나 속죄되어 풀려났다. 정량을 거쳐 세종2년 사헌부 장령에 승진되고, 이후 선공감정·형조·병조의 참판과 판서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사헌부의 관직을 여러차례 맡으면서 바른말을 잘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다. 묘역은 크게 2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봉분은 단분으로 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의 형태는 하단 전면과 좌우면에 장대석으로 보호석을 둘렀는데 방형에 가까운 장방원형분이다. 봉분 앞에는 화관석花冠石 형태의 묘비 2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데 좌측이 정연의 묘비로 세종 26년(1444)에 건립된 것이고 우측이 부인의 것으로 세종 27년에 건립된 것이다. 묘비 앞에는 상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고, 그 앞으로 장대석을 이용한 계단석이 놓여 있다. 묘역 전방에는 좌우에 문인석 2쌍이 배열되어 있다.



- 지 정 번 호 | 경기도 기념물 제139호
- 지 정 년 월 일 | 1993년 6월 3일
- 시 대 | 조선 전기 세종 26년(1444)
- 소 재 지 | 탄현면 범흥리 산148
- 소 유 자 | 연일정씨 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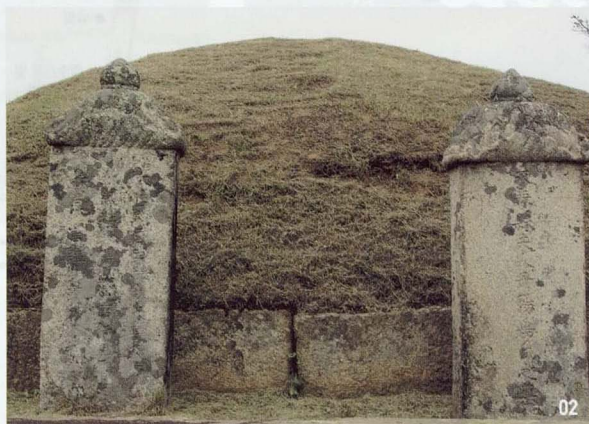
주변문화재: 장릉

금촌 - 탄현방면 - 맥금동 오두산 주유소에서 자유로 방면으로 진행 - 한국시그네텍스에서 아주단지쪽으로 좌회전해서 고개를 넘으면 효자그린빌 맞은편에 위치 ● 불광동 909(좌석), 서울역 9709(좌석)타고

- 01 | 정연 묘
- 02 | 묘비
- 03 | 정연 묘 문인석



01



02



03

종계변무宗系辨誣 문제를 해결한 청백리

황정욱 묘 및 신도비

黃廷或 墓 및 神道碑

황정욱黃廷或, 1532~1607은 방촌 황희의 후손으로 자는 경문景文, 호는 지천芝川,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1552년(명종 7) 사마시에 합격하고 155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561년 호조·예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해미현감으로 나아갔으며 다시 내직으로 돌아와 성균관직강에 오르고 1565년 헌납 겸 지제교와 부수찬을 거쳐 지평을 지냈다. 1584년 주청사로 명에 가서 여러 왕대에 걸쳐 명나라 문헌에 태조 이성계의 부친이 이인임李仁任으로 잘못 기재된 문제, 즉 '종계변무宗系辨誣'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가 되고 이어 호조판서로 승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나자 호소사가 되어 왕자 화순君和順을 배종하여 관동으로 피신하였는데 이곳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로부터 항복 권유문을 쓰도록 권유 받았으나 거절하였다. 하지만 두 왕자를 죽인다는 위협에 아들인 황혁黃赫이 대신 썼다. 이 항복권유문 문제는 동인과 서인간의 정치쟁점이 되었으며 이후 정권을 장악한 동인의 공격을 받아 길주에 유배되고 말았다. 1579년 왕의 특명으로 석방되었으나 복관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묘역은 정서 방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봉분 1기, 묘표석 1기, 상석, 향로석, 문인석 등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은 개축하여 호석을 둘렀는데 정경부인 순창 조씨淳昌趙氏와의 합장묘이다. 묘역아래에 위치한 신도비는 규모가 상당히 크고 이수부가 매우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비문이 마모되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주변문화재: 황희 선생 묘, 황수신 묘, 춘곡 정탁 묘, 덕은리 주거지 및 지석묘군

통일로 - 월롱역 - 월롱면 사무소 - 덕은리 - 탄현 금승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금승리 마을회관 전 우측 산에 위치 • 자유로 - 낙하IC - 낙하리 사거리 - 금승리 방향



- 지 정 번 호 | 향토유적 제19호
- 지정년월일 | 2002년 7월 29일
- 소 재 지 | 탄현면 금승리 산7
- 소 유 자 | 잠수항씨 증중



01

02

- 01 | 황정옥묘
- 02 | 묘비
- 03 | 신도비각
- 04 | 신도비



03



04

진행 하다 금승리 마을회관 지나 좌측 산자락에 위치

쇄납제작에서 연주기능을 함께 보유한 달인

전통 쇠납 제작 연주기능 조병주

쇄납은 태평소 또는 날나리 라고도 불리는 악기로 우리나라 전통 농악 연주에서 빠질 수 없는 악기이다.

전통 쇠납 제작 및 연주 기능보유자인 조병주 옹은 60여년 평생을 쇠납과 함께 해 온 쇠납의 달인이다.

특히 쇠납을 직접 제작 하고 또 연주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다. 조병주 옹은 어려서부터 부친의 대를 이어 쇠납을 불고 또 직접 쇠납을 만들어 왔다. 젊은 시절에는 오촌 당숙과 칠촌 당숙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이것을 해서는 못 살아 간다.” 고 하며 매번 쇠납을 깨뜨려 버렸다고 한다. 그럴때마다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만들어 불곤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쇠납의 달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병주 옹은 쇠납 연주에 대한 재능을 인정받아 각종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경기도 으뜸이' 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 지 정 번 호 | 무형문화유산 제1호
- 지정년월일 | 2002년 7월 29일
- 소 재 지 | 탄현면 금산리 174



- 01 | 조병주 쇠납제작 모습
- 02 | 연주장면



주변문화재 : 금산리민요, 장릉, 오두산성

금촌 - 탄현면 - 탄현면 사무소에서 문산방면 직진 - 오금리 마을 전에 좌측 금산리 마을에 거주

